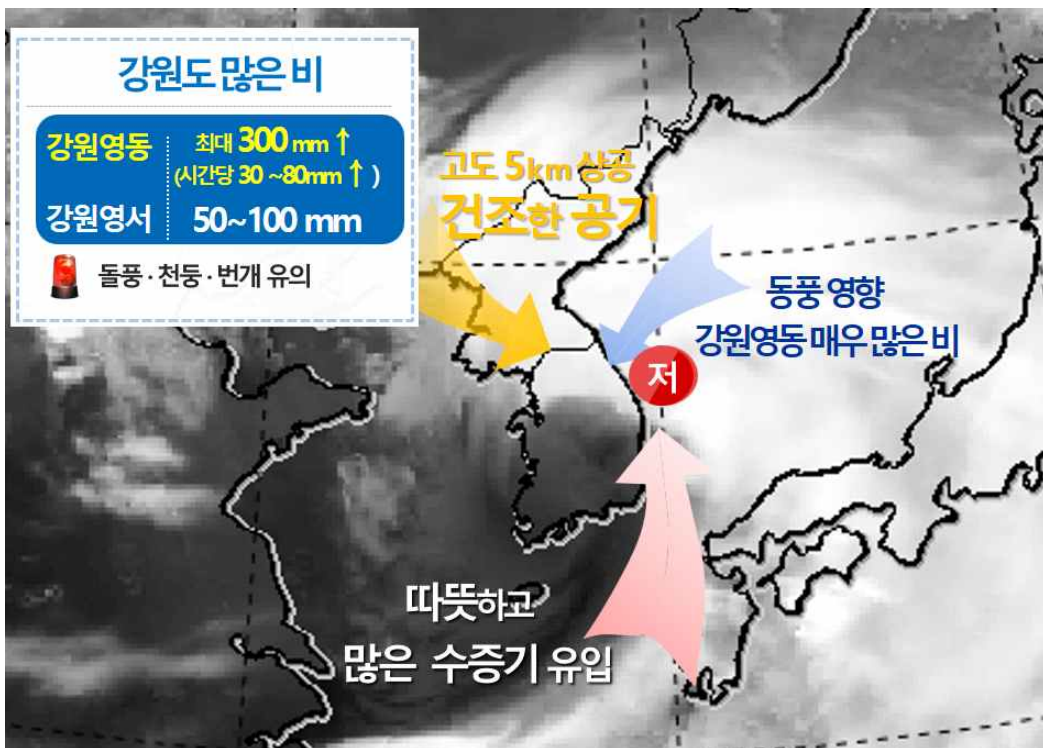


배포일시	2020. 6. 29.(월) 14: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한윤덕 주무관 함인화
		전화번호	033-650-0347

강원도 태풍급 호우·강풍·풍랑 유의

- 29일 저녁 ~ 7월 1일 새벽, 강원도 많은 비
 - 강원영동: 총 100~200mm(많은 곳 300mm ↑)
 - 강원영서(30일 저녁까지): 50~100mm
 - 29일 밤~30일 오전, 강원영동 시간당 30~80mm의 강한 비
- 29일 밤~30일 강원영동과 정선평지 매우 강한 바람 주의
 - 최대순간풍속 시속 70km(초속 20m) 이상 부는 곳 있겠음
- 29일 늦은 밤~7월1일까지 해상 높은 파고와 해안가 너울 유의



[6월 30일 새벽] 우리나라 주변 예상 구름과 기압계 모식도

[강수 전망]

- (원인과 전망) 오늘(29일)과 내일(30일)은 중국 상해 북쪽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여 동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은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 오늘(29일) 저녁(18시)부터 강원중남부에 비가 시작되어 밤(21시)에는 강원도 전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영서는 내일(30일) 오전(12시)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은 모레(7월 1일) 새벽(06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 (강수량·강우강도) 특히, 오늘(29일) 밤~내일(30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강원영동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mm 이상의 강한 비와 300mm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 **예상강수량(29일 저녁(18시)부터 7월 1일 새벽(06시)까지)**
 - 강원영동: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 강원영서(30일 저녁(18시)까지): 50~100mm
- 매우 많은 비로 인해 강원영동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 특히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변동성) 일부 강원남부내륙에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풍 전망]

- 오늘(29일) 밤부터 내일(30일)까지 강원영동과 정선평지에는 바람이 시속 35~60km(초속 10~16m),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시속 30~60km(초속 9~13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강원영동과 정선평지로 강풍 특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탑,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또한,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하기 바랍니다.

[풍랑 전망]

- 오늘(29일) 늦은 밤부터 모레(7월 1일)까지 동해중부해상에는 바람이 시속 35~90km(초속 10~25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3~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해 동해중부전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되겠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모레(7월 1일)까지 강원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일부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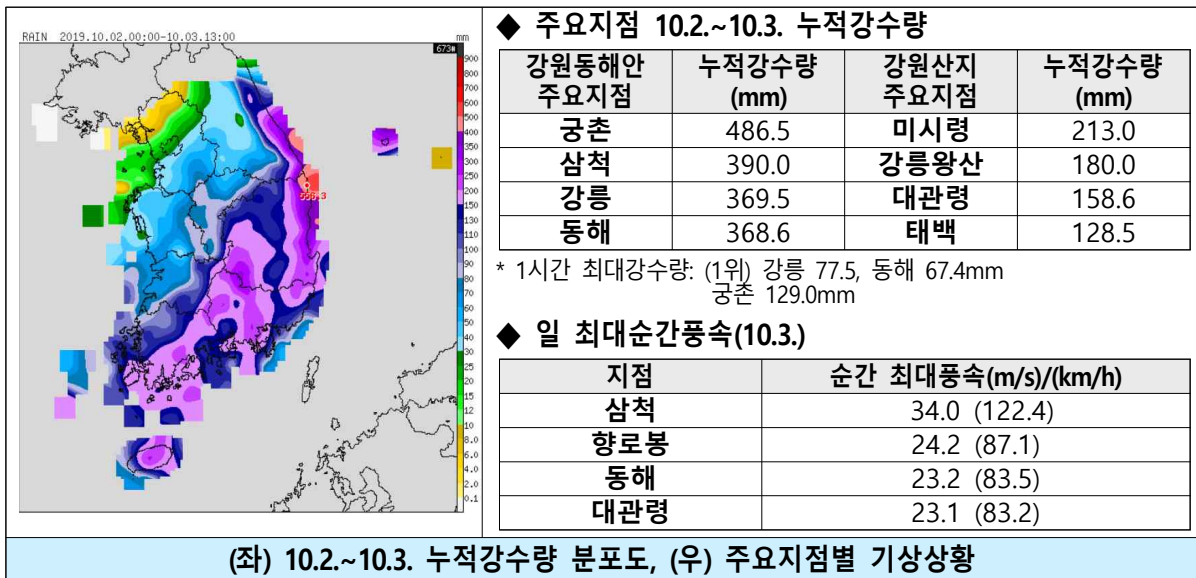
참고

유사사례 피해: 2019년 태풍 '미탁(MITAG)'

《 요약 》

- ◆ (인명피해) 삼척 1명 사망(산사태로 인한 토사 집 덮침), 부상 3명
- ◆ (침수피해) 삼척근덕 원덕 주민대피령, 삼척동해강릉지역 건물·차량 침수피해 다수

1 기상상황(10.2.~10.3.)



2 피해관련 언론보도

강원 삼척 시간당 129mm 폭우...주민 대피-침수 피해 속출

일찍 2019.10.03 (00:34) | 수평 2019.10.03 (00:34) | 시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근촌리에 시간당 129mm의 폭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 원덕읍 일대에는 마을 곳곳이 침수됐고, 원덕읍 노원리에서는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차를 위로 대피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삼척시 근덕면 원후리 장후리남 인근과 원덕읍 용와 들개리 등 인근 등 7번 국도 일부는 산사태로 토사가 넘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야 삼척시청을 둘러싼 사찰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침수-붕괴 잇따라...이재민 30명·1천546명 사전대피

윤옥탄에 침수된 삼척 시내 도로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 삼척에 400mm의 폭우가 쏟아져 삼척 시내 도로가 물에 잠겼다. 2019.10.3 by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8명이 죽거나 다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4명이다.

이날 0시12분께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배수로를 손보던 72세 여성이 급류에 빠져 실종됐다가 승진 재 발견됐다.

[출처] (좌) KBS("19.10.3.), (우) 연합뉴스("19.10.3.)